度 넘은 日 각료 망언… 한·일 또 삐걱

獨 나치식 개헌 발언 이어 한국민의 民度 거론

정부 "무례하다" … 8·15계기 갈등 심화 가능성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대승으로 종료되자마자 한일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있었던 응원에 대한 일본 각료의 망언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 30일 "그 나라의 민도(民度)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한국 응원단 플래카드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한일전 응원을 둘러싼 논란에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던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무례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력 비판했다.

애초 외교부는 축구 응원전 논란에 대해 "축구협회가 답변할 사항"(대변인)이라면서 불개입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일단 발언 자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상의 발언이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의 '독일 나치식 개헌' 등의 망언에 이어 나왔다는 점도 정부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망언 릴레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서 8·15 광복절의 일본 동향을 주시하는 것도 이 같은 차원이다.

이번 축구 응원전 논란을 볼 때 지난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이 광복절 전후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축구 응원전 논란 자체는 일회적이고 돌발적인 사안이나 잘못된 역사·현실 인식을 가진 자민당 내 주요인사의 망언은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15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소 부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등 내각 핵심인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만일 일본 내에서 광복절 전후로 과거사 도발이 있으면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반기 한일관계도 계속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일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9월 G20(주요20개국),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무대로 한 한일 정상간 만남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미국 소녀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글렌데일 시립 도서관 앞에서 제막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회담 제의 사흘째 묵묵부답

정부, '진정성 있는 변화' 촉구… 민간단체선 대북지원 시작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사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지난 31일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없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이 답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 "아직까지 '거부'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와 함께 조속한 (회담) 호응을 촉구한다는 점만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북지원 승인을 받은 5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작업이 지난 이날부터 시작됐다.

민족사랑나눔은 이날 신의주의 고아원과 탁아소, 유치원 등에 보낼 빵 2만 개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에서 트럭에 실어 신의주까지 육로로 보낸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내달 2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항생제와 소염제, 의료소모품 등 2억2300만원 상당의 지원물자를 보낸다. 푸른나무의 지원 물자도 다음 달 2일 인천항에서 출발해 9일 단둥을 거쳐 10일 남포항에 도착한다. 장애인 학생들과 고아들을 위한 휠체어, 목발, 담요, 아동의류 등 2억9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이다.

어린이어깨동무와 기아대책 섬김도 8월 중순 이전에 물자 북송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국 땅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해외 첫 제막

美 정치인들 "日 위안부 비극 진정한 사과" 촉구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비극을 세계에 고발한 '평화의 소녀상'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똑같은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립 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서 소녀상을 제막했다.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부부 작가가 똑같이 새로 만들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설명하는 석판이 딸린 점이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과 다르다.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상징물이 미국 서부 지역 지방정부 공공부지에 들어서는 것도 처음이다.

제막식에는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와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 글렌데일 시정부를 대표한 시의원 4명, 그리고 지역 정계 인사와 지역 시민, 한인 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글렌데일 시장을 세차례 역임하며 위안부 규탄 결의안과 위안부의 날 채택에 이어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프랭크 퀸테로 시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4명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제막식에는 일본계 주민들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 NRCC 캐시 마사오카 대표는 회원 1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마사오카 대표는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은 과거 역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저도서 휴가 마치고 서울로

휴가사진 페이스북에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거세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지난 31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위치했던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음을 알리는 글과 함께 사진 5장을 올렸다.

전날 박 대통령은 '추억 속의 저도'라는 글에서 "35여 년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 편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돼서 그리움이 밀려온다"고 적었다. 이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저도의 모습… 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자태는 마음을 사로잡는다"며 "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걸으며…"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진 5장에 각각 제목을 붙였다. '저도의 추억'이란 사진에는 박 대통령이 긴 치마에 편안한 복장으로 백사장에서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란 글을 모래 위에 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산책하면서'란 사진에서 박 대통령은 산책로를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고, '선상에서'라는 사진에서는 배 위에 앉아 선글라스를 쓴 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 일부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가 경호상 휴가지가 어디인지를 알리기 꺼려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저도를 이미 떠난 시점에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일까지 휴가인 박 대통령은 남은 휴가기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적한 정국 현안에 대한 구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저도(猪島)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종신형 피할 듯

美 군사재판, '이적혐의' 무죄 평결

미국 군사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각)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매닝 일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육군 중령)는 이날 메릴랜드주(州)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발표했다.

법원은 그러나 매닝 일병에게 적용된 간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간첩법 위반,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軍) 규정 위반 등 모두 20여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평결함에 따라 매닝 일병은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린드 판사가 높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시작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경우 항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평결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매닝 일병의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포트미드 기지 인근에서 '진실'(truth)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 건 물 2974 ㎡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 건 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 건 물 4489 ㎡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사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30억 외 다수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완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